

미국 홀스타인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와서

사무국장 박 신 호
(농학박사)

<머릿말>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동북부에 있는 코네티컷주의 하트포드에서는 미국홀스타인협회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행사가 열렸다. 세계 31개국에서 온 약 300명의 대표단과 미국 낙농분야에 종사하는 낙농가 등 관련자 약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매머드행사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부의 이인형낙농초지과장과 국립종축원의 조운연과장이 미국정부의 초청으로 참석하였고 낙농가로는 김태신단장을 위시하여 20여명이, 협회에서는 황영구고문과 그리고 제가 정부관리와 같이 갔다가 참석하였다.

기념행사는 총회전 행사와 기념총회로 구분하여 개최되었고 이 기회를 이용한 각종 국제행사가 열렸으며 1988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 7차 홀스타인대회를 위한 사전준비회의가 각 참석국의 회장과 사무국장이 모인가운데 진행된 것이었다.

<총회전 각종 기념행사>

총회전기념행사가운데는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하여 미국홀스타인젯소의 100년동안의 개량을 소개하는 슬라이드 상연이 있었고 미국홀스타인협회의 명예회원증과 기념품증정등의 행사가 있었다. 특히 국제낙농인의 밤에 참가국을 알파벳순서로 그 나라의 국기를 앞세워 입장시킨 후 각국 대표단들을 참석자에게 소개하는 순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뉴질랜드와 일본 다음으로 많은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24명의 한국대표단이 일제히 일어난 가운데 한국이 소개될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 우리의 국력도 이만큼 성장하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가슴이 뭉클하였다.

가장 인상적인 행사의 하나는 100주년을 기념

하는 홀스타인품평회와 홀스타인경매였다. 품평회에는 18개 부문에 총 230여두가 출품되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출품축의 자질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우수한 홀스타인들이었다. 이 품평회의 심사원은 Keene 씨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사원 중의 한사람이 맡아 진행하였다. 대경매에도 136두가 출품되어서 진행된 대단히 규모가 큰 행사였으며 이 경매에서는 수정란으로 난 1년짜리 암송아지가 510,000 \$ (우리돈으로 약 4억5천만원)에 팔리는 등 기록적으로 높은 값으로 팔려 나갔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의 조상(혈통)을 보면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혈통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을 만큼 우수한 혈통의 산물이었다.

이 소의 아버지는 마쉬필드 엘레베이션 토니 (Marshfield Elevation Tony)이고 그 어머니는 2세때에 12,000 kg의 우유를 생산하였고 외할아버지는 에스-다블류-디 발리안트 (S-W-D Valiant)로 미국종모우 중에서 2위를 점유하고 있는등 대단한 것들이었다.

특히 조부인 라운드오크 래그애플 엘레베이션 (Round Oak Rag Apple Elevation)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능력검정을 받은 딸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종모우로 1979년에 사망한 뒤에 셀렉트싸이어 인공수정소알 정원에 묻혀있는 아주 유명한 종모우이다. 이렇게 유명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4억5천만원짜리 암송아지는 물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것이다.

<총 회>

총회는 협회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개회기도, 미국국가합창 등의 순서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다룬 중요한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는 일본 북해도

가축개량사업단의 전문가 “일본에 있어서의 홀스타인의 역할”이란 제목의 강연이 있었고 이어 향가리국립종축목장장이 “헝가리젖소개량에 미친 미국홀스타인의 역할”이란 강연이 있었다.

일본에서 발표한 것은 북해도의 홀스타인개량 역사와 미국에서의 종모우구매방법에 이르기 까지 꽤 상세한 내용이었고 헝가리에서의 보고는 헝가리에는 본래 흑백색의 젖소가 있었으나 능력은 그리 좋지 못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미국에서 우수한 홀스타인의 정액으로 수정시킨 결과 2대 및 3대가 점차 개량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총회 이틀째는 청소년회원을 위한 특별순서가 진행되었고 회장 및 사무국장의 연설, 정관개정,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선거가 있었다. 회장은 부회장이 승계하므로 부회장만 선출하게 되는데 그 선거전이 특이하였다. 즉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가슴에 자기가 지지하는 부회장의 이름이 새겨진 뱃지를 항상 달고 다니는 일이었다.

회장의 특별연설내용에는 앞으로 홀스타인을 보다 더 기능적체형과 산유량을 갖춘 효율이 높은 젖소로 계속 계량하여 세계에서의 지도적인 위치를 계속 확보하여 가자는 것이었다. 위대한 미국의 홀스타인의 자리를 계속 지키자는 이 연설에는 계속하여 개량기술면에서 앞서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충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100년! 100년의 역사가 흐른 오늘의 미국은 미국홀스타인젖소가 분명히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자부심에 가득차 있다. 그런데 이들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어려운 시련과 고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협회는 초기에는 능력검정사업, 지도사업, 심사업무, 우유마시기 캠페인, 청소년회원 육성, 품평회의 개최 등 젖소개량이나 낙농에 관여된 일은 거의 관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심사위원들간에는 홀스타인체형에 대한 의견이 서로 각각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바와 같은 이상형모델을 1922년에 위원회를 조직하여 1923년에 확정된 것이었다.

100주년기념행사 및 총회는 폐회연회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200주년을 향한

첫발을 다시 내딛게 된 것이다.

<맺음말>

우리일행은 이 행사를 전후하여 낙농목장, 종모우사육장(인공수정소), 유우군능력검정소분석실, 유가공장등을 방문하여 여러가지를 볼 수 있었다. 너무도 부러운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개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처음에 모두 7,800두를 화란에서 수입하여 온 젖소를 기초로 100년이 걸려 이러한 대역사를 이루어 놓은 것이다. 부럽다고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여야 한다. 그 기초는 등록에 의한 혈통의 보존이다. 혈통을 모르고서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선진된 개량기술과 정보를 알고 있다. 선형심사도 시작하였다. 컴퓨터도 설치하여 등록증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더 필요한 것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우리는 지금 축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개량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여 나가는 일이다. 우리의 후손이 10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홀스타인을 사육하고 있노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개량의 씨앗을 뿌려가야 하지 않겠는가?

수정종모우의 기록을
철저히 합시다.

